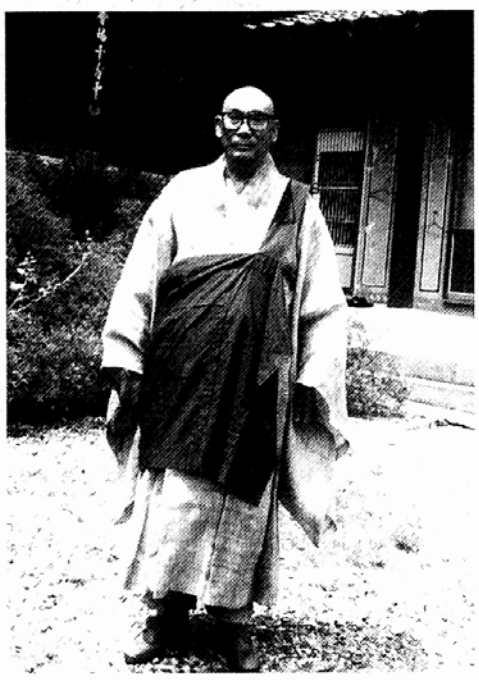
법윤 스님은?

큰사찰 주지 마다하고 사자암서만 30년 수행



1921년 부산 대청동에서 태어난 법윤 스님은 열일곱 살에 일본에 가서 10년정도 공부하면서 유리병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기도 하는 등 고학을 했다. 일본에서 절에 다닌 것이 인연이 되어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도 절에 계속 다니게 된 스님은 절에 가면 왠지 마음이 편하고 좋았다고 한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특채로 검찰에 들어가 일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잘못을 한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벌을 주는 일이 허다했다.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영 편치 않았고 '다 같은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때리고 벌을 주다니'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직장생활이 마음에 맞지 않고 절에 가면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에 끌리어 36살 때 절에 들어가 정진하다가 1964년 동산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1966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변호사, 판사 친구들이 찾아와 다시 세상에 나올 것을 권유했지만 "극락을 여기 두고 지옥으로 다시 가라는 말인가"며 거절하고는 지금까지 범어사 사자암에서 여여하게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고향에 돌아가는 일만 남겨 놓았다"는 스님은 한의학에도 능해 신도들의 건강을 염려해주며 사자암의 대 소사를 챙기는 일과 함께 화두참구의 본분사를 잊지 않고 있다.



◇아만심을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법윤스님.

을 이렇게 전했다. "새벽이면 어김없이 방에 불이 켜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정진을 하십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서 화내시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어른이라고 대접 받으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사람 없는 곳에 조용히 불러 타일러 주시니 더욱 조심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알고 있는 것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못함에 또 하나를 더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면서도 불제자들이 올바로 불교를 알고, 불교의 근본 가르침에서 떠나지 않는 공부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여쭈었다.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경전 보기입니다. 그냥 읽지만 말고 그 뜻을 새겨보아 모르겠으면 스님을 찾아 의문나는 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뜻을 알고 공부를 해 나가야 합니다. 뜻도 모르고 경을 외우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그것도 안 읽은 것보다는 낫겠지만 경전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경을 많이 알아도 내가 안다는 아만심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아상을 없애야 한다는 것과 직결됨으로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면서도 내가 공부를 했다, 내가 안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어 스님은 경험 한토막을 들려 주셨다.

"범어사 선방에 들어가서 한 2~3년 되었을 때 '내가 알았다' 하는 교만한 생각이 나타났지. '나보다 더 앞 설 사람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난 거라. '이거 큰일 났구나' 싶더라구. 왜냐하면 어른들 말씀에 그런 생각이 나면 그건 틀렸다고 했거든요. 그 마음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어째야 되겠노 하고 고심을 많이 했어. 조실스님을 찾아뵙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당시 조실스님은 정광스님이라고, 선지가 최고 라고 알려졌던 분이었어. 그래서 선방 입승이었던 정일스님과 함께 조실스님이 계시면 해인사까지 갔어요. 그 때도 이맘때처럼 무척 더운 때였는데 조실스님께 가서 세 번 절을 드리고 여쭈었지. '스님, 내가 알았다고 하는 경계가 나타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나아갈 길을 일러주십시오' 했더니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가을에 다시 만납시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시고 가을에 다시 만나면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요' 이러거든. 얼마나 서운하고 허탈하든지. 부산에서 해인사까지 먼 길을 찾아 갔는데 그 말씀만 듣고 오자니 참 섭섭하더라구. 그래도 어른 말씀이니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를 이어 갔어요. 그 해 가을이 되자 조실스님께서 '가을에 보자' 고 한 뜻을 짐작하고는 찾아뵙지 않아도 되었지. 계속 공부를 하다보니 조실스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익어가는 가을에 스님의 마음 또한 함께 영글어 '내가 알았다' 하는 생각마저 떨구고 스님의 공부가 철저한 겨울나기에 들어선 시기임을 짐작케 한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시간을 더해가며 정진하던 중 사자암과 인연되어 30여년의 긴 시간을 오로지 사자암에서만 보내셨다.

"범어사 주지를 하라고 2번이나 중진회의에서 결정을 한 적이 있어요. 중진회의를 한다고 해서 가니 나를 주지로 추대를 해 버리는 거라. 추대를 받으면 중진들 앞에서 부처님 앞에 절하듯 절을 하게 되는데 그 절을 받으면 거역할 수가 없게 되거든. 그런데 나는 절 세 번을 받고도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는 와 버렸어. 이렇게 두번 주지직을 사양한 것은 주지하라는 말이 중 노릇 하지 말고 옷 벗고 가라는 말과 한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 속가에서도 할 만한 것은 다하고 왔는데 출가까지 해서 주지 자리가 뭐라고 내가 할거냐 는 생각이 들었지. 물론 그것은 사람 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큰 절 주지를 안하겠다고 하니 사자암을 맡으라 해서 그것도 마땅치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주지로 오게 되었지"

"만물이치 터득하고 트인 안목 가져야 어른노릇 제대로"

스님은 출가전 일본에서 법학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검찰직에서 일했다. 그 당시로서는 부러울 것 없던 자리에 있었던 스님은 그 자리를 마다하고 출가를 한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출가이후에도 어떤 자리나 명예, 권력에 대해서도 마음의 흔들임이 없었고 그런 이유로 주지직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크고 작은 사찰의 주지자리를 놓고 갈등과 다툼이 잦은 요즘, 출가의 본뜻을 잊지 않는 스님의 의지를 되새겨 봄직하다. 범어사 주지 자리를 마다 하고 맡은 사자암은 그 당시 암자로서의 격도 갖추지 못한, 형편이 어렵기로 소문나 누구도 오려하지 않았던 곳이었다.

오로지 신심과 원력으로 사자암 불사를 진행해 오면서 스님의 검약정신과 철처한 삼보정재 관리는 유명하다. 상좌 경우스님은 "절의 음식은 특별히 아끼고 소중히 해야 한다는 말씀을 늘 하시고 스님께서 워낙 철저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소중히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전했다.

"내가 구시대 사람이지만 이 시대에 맞추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운 것은 다 불법이 가져다 준 안목이야. 그런데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생각이 뒤쳐져. 예를 들면 남자들에게 아내가 아프면 밥도 해주고 자녀들도 챙기고 해야 된다고 하면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걸 합니까' 그러거든. 나, 참, 나도 아는 걸 왜 요즘 사람이 모르는지. 그러니 시대에 맞게 생각을 잘 조절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틀을 과감히 부수어야 해.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생각의 발전이 늦고 넓은 마음을 쓸 수가 없어. 자신의 잘못된 점은 인정 하고 참회하면서 상대방을 공감시켜 나가는 것이 진짜로 이기는 것이지. 내 의견이 옳다고만 주장하면 지게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사람 마음이 가짜면 어느것도 담을 수가 없다는 거 명심해. 세상에 가짜가 많지만 마음이 가짜인게 제일 문제야."

알고 있는 것 하나라도 철저히 행하는 것,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지금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깨달음의 요체인지도 모른다. 법윤스님의 가르침은 평범해 보이지만 실천의 어려움에서는 견줄 수 없을 정도의 무게로 마음에 내려 앉아 떠나지 않고 오래 남았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현진스님의 스님이야기 불굴스님(상)

불굴(佛窟)스님의 지난 수행 일정은 참 드라마틱하다. 13살 어린 나이에 출가한 스님의 수행길은 굽이굽이마다 진한 감동과 가르침이 살아있다. 소리꾼은 한이 많아야 그 가슴에서 그 소리가 울린다고 했던가. 현재 세수 50세인 불굴스님도 어찌 보면 소리꾼 못지 않게 신산(辛酸)한 삶을 살아왔다. 그래서 스님의 수행 이력은 그 어떤 법문보다 잔잔하게 마음을 일깨운다.

불굴스님은 오른쪽 손가락 세 개가 없다. 손가락 세 마디가 닳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부처님께 연지(燃指)공양한 거룩한 훈장이다. 그 손가락 마디마디를 태운 스님의 구법(求法)정신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스님이 혈기왕성하던 20대 중반인 지난 80년대 초 연지를 하기까지의 사연은 마치 영화 속 이야기 같다.

20대 때 스님은 수행자로서의 기상이 펄펄 살아있었다. 마치 칼 같은 성격이었나 보다. 그래서 원칙에 벗어나거나 도리에 어긋난 일은 절대 용납하지 못해 늘 말썽이 많았던가 보다. 특히 법주사 강원에서 공부할 때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고 한다. 도량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짧은 치마를 입고 오는 관광객들과 다투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러한 성격 때문에 법주사

"불같은 성격 안으로 돌리자" 오른손 세 손가락 연지공양

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해인사 강원으로 가게 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해인사는 기상이 살아 있는 도량이다. 스님들 또한 개성이 강하고 성격이 불같다. 그래서 해인사에서는 스님들과 주먹다짐을 한 일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함께 살았던 도반스님들의 말에 의하면, 정말 못 말리는 괴각(乖角)이었단다. 그러던 어느 날 오른손을 바라보던 스님이, "오른손이 악업을 짓고 주먹질을 하는 놈이니, 이 오른손의 힘을 죽여야 한다"고 결심하면서부터 자세가 확 달라지게 되었단다. 그 날부터 장경각에서 백일 기도를 시작하고 오른손의 힘으로 목탁만 칠 것을 서원했다. 오른손의 힘을 내부로 돌리자, 지난날의 행동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 흐르고 알 수 없는 신심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백일 기도를 마치는 날 스님은 연지 공양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연지를 할 때는 반드시 스님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 연지를 하는 스님이 뜨거움을 참지 못해 기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모기에 물려도 움찔하고, 손끝에 상처만 나도 통증을 느끼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살이 녹는 그 뜨거움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렇지만 수행을 하면서 환희심이 생기면 그 고통을 수행으로 승화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수행자가 육신 일부를 소신(燒身)하는 일은 자기 학대가 아니라 공부의 확인인지도 모른다. 끝없이 집착하던 육신에서 자유로워졌다는 뜻일 것이다.

아무튼 불굴스님은 엄지와 약지만을 남기고 가운데 세 손가락에 헝겊을 칭칭 감고 기름을 부었다. 이 때 기름이 배어들도록 먹이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살을 태우지 못하고 화상만 입는다고 한다. 불길이 빨리 빠지지 않는 알콜을 붓고 불을 붙이는 그 광경은 상상만 해도 가슴 뭉클하다. 불굴스님은 그 당시를 회상할 때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다고 믿는다. 손가락이 타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 아무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 마치 화두를 붙들고 있을 때처럼 정신이 오롯하고 성성하였다고 하니까, 당시 스님의 신심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때가 여름이었는데 그 부위가 곪거나 덧나지 않고 잘 아물었고, 화독(火毒) 또한 스며들지 않았다는 것도 불가사의하다. 흔히 연지를 하면 뼈는 남는다고 한다. 스님은 병원에서 살점만 타고남은 그 뼈를 톱으로 자를 때,



예쁘고 보기 좋게 해달라고 농담까지 하셨단다.

연지를 하면서 스님은 다시 한번 출가하였다고 말한다. 거짓말같이 주먹질 하는 습관이 사라지고 밖으로만 치닫던 성격이 안으로 다스려진 것이다. 물길을 논으로 돌리면 농사를 짓듯, 스님 역시 힘의 작용을 마음 공부로 전환시킨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전까지는 백일 기도를 제대로 회향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기도만 시작하면 마장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서 중도에 그만두기가 일쑤였지만 연지를 한 다음부터는 공부가 일사천리로 되었다. 그래서 스님은 해인 강원을 무사히 졸업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신다.

지금의 불굴스님은 봄 햇살처럼 따스하다. 젊은 날의 기상이 이제는 안으로 스며 있는 듯하다. 멜로 영화를 보면 눈물부터 흘리고, 달라이라마의 삶을 존경하는 스님이기도 하다. 조석으로 예불을 올리면서 티베트의 독립을 발원하는 이는 아마 불굴 스님 뿐일 게다. 이러한 스님을 뵈면 과격성과 유연성은 하나의 성질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성질은 쓰는 작용에 따라 아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수행은 결국 이처럼 마음의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일이 아닐까 싶다.

▩월간 '해인' 편집위원

죽기 전에 단 한 번만 읽어도 영원한 해탈에 이른다는 천년 신비의 경전!

삶과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환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원한 대자유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을 불러일으키는 책!



티벳 사자의 서

파드마삼바바 지음 | 에반스 웬츠 편집 | 칼 융 해설 | 류시화 옮김 | 양장본 | 525면 | 15,000원

죽음 이후, 영혼의 행로 49일을 밝힌다!

경전 전문에 풍부한 주해를 달고, 칼 융의 심리학적 해설을 비롯한 상세한 해제를 수록하여 원전의 진의를 완벽히 드러낸 국내 최초의 완역본. 류시화의 우리말 번역으로 읽는 정신세계사의 《티벳 사자의 서》!

티벳 밀교의 정수를 담은 에반스 웬츠의 티벳 라이브러리! — 칼 융이 경탄한 인류 최고의 정신과학!
20세기 초, 옥스퍼드 대학 인류학 박사 에반스 웬츠는 인도로 가서 라마 카지 다와삼둠의 제자가 되었고, 티벳 불교의 정수를 4부작으로 복원해냈다. 《티벳 사자의 서》, 《티벳 해탈의 서》, 《티벳 밀교 요가》 그리고 출간 예정인 《티벳의 위대한 요기 밀라레파》가 바로 그것이다.

• 나는 이 책에서 수많은 근본적인 통찰력을 얻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칼 융
• 티벳의 수행법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참다운 자아를 발견하게 한다. — 한겨레
• 정신세계를 다룬 티벳 최고의 경전. 칼 융이 직접 해설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 조선일보

티벳 밀교 요가 신간!

라마 카지 다와삼둠 번역 | 에반스 웬츠 편집 | 유기천 옮김 | 양장본 | 520면 | 18,000원

티벳 성자들을 깨달음에 이르게 한 최상승 요가 수행법!

틸로파와 나로파 · 마르파 · 밀라레파를 포함한 인도와 티벳의 유명한 많은 성자들이 깨달음을 얻는 데 사용했던 요가 수행의 비의! 수행에 뜻을 둔 사람이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

티벳 해탈의 서

파드마삼바바 지음 | 에반스 웬츠 편집 | 칼 융 해설 | 유기천 옮김 | 양장본 | 432면 | 15,000원

이몸 이대로 해탈에 이르게 한다!

왜 이 책은 1,000년 동안 동굴 속에 숨겨져야 했는가?
8세기경, 티벳에 불교를 전하고 수많은 비밀 경전을 남긴 붓다의 화신 파드마삼바바. 그가 예언한 대로 천년 만에 환생한 그의 제자들이 찾아낸 바로 그 책!

• 격월간 《정신세계》 재창간 기념 정기구독자 특별 이벤트

1년 구독료로 2년간 정기구독자가 됩니다!
8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뉴에이지 종합지 격월간 《정신세계》가
1년 정기구독료 7만2천원으로 2년을 구독하시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7월 31일까지).
정기구독을 하시면 자동으로 정신세계원 회원이 되시어 강좌 · 물품 구입 때 할인 받으시고, 정신세계사의 모든 책도 할인 받습니다.

▸ 정기구독 신청 — 전화 : (02)733-3135(401 · 407)/ 팩스 : (02)747-7034/인터넷 신청 : www.mindvision.org
송금구좌 : 은행 · 우체국 · 농협 지로번호 · 3006577, 홈뱅킹 : 009-21-1159-604(국민은행,예금주 송순현)

정신세계사 · 월간 정신세계 · 책방 정신세계 · 정신세계원
전화 747-7033 / 팩스 747-7034 | www.mindvision.org